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한밤중에 잠깨어



달구경 古詩 27-14

벗이여 달빛 아래 술 마시려면
오늘 밤 저 달을 놓치지 말게.
만약 다시 내일을 기다린다면
뜬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날 걸세.
만약 다시 내일을 기다린다면
둥근 달빛 하마 이미 이지러지리.



**

여보게! 달빛 아래 술 한잔 하고 싶은가?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게나.
'다음에나' '언제 한번'은 없는 걸세. 달빛이 곱거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야 하네.
함께 할 벗이 없다고, 준비된 좋은 술이 없다고 내일로 미루지 말게. 오늘 저 달을 그저 보내고 나면 내일은 갑작스런 먹구름이 달빛을 가릴 걸세. 또 하루를 미뤄 날씨 좋고, 벗도 오고, 술도 갖추면 뭘 하겠는가. 그땐 이미 달빛이 보름에서 멀어진 것을. 언제나 지금 여기가 중요할 뿐이라네. 미루지 말게. 다음 번은 없네.
일기일회 一期一會, 카르페 디엠

9월 이달의 책 『한밤중에 잠깨어』 (정민, 문학동네) 中



PNUL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전산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지식의 나무 |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내 벽면에는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도서관의 의미가 담긴 '지식의 나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1000년을 빛낸 100인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C O N T E N T S

- 04 칼럼 나의 인생, 나의 책
- 06 특집 도서관은 변신 중!
-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을 열거하는 사람들
우리 학과만을 위한 도서관 학술정보가이드
-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이젠, 보고 싶은 외국학술지 무료로 맘껏 이용하자!
-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인간의 불안전함과 운명애
2012년 상반기 효원인의 베스트셀러
- 14 시선집중
-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제환 발행일 2012. 9. 18.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510-1800 | <http://pulip.pusan.ac.kr>
편집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전산팀 | 051-510-1810 | library@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Library Space〉가 〈효원in도서관〉으로
2010년부터 발행되었던 〈Library Space〉가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효원in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원in도서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소심증과 열등감, 체면의식과 조급증의 원인을 알아보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책으로 인생은 허세가 아닌 배짱으로 사는 것이며, 배짱이란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다움으로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책이었다.

나의 책

그 당시 나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둔 진주 시골 출신으로 약간의 체면의식과 소심함을 가진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내게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그 후 이 책은 『배짱으로 살아갑시다』 『배짱으로 성공합시다』 등 3권의 시리즈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에게 인생의 길을 배짱권법으로 여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

유학 준비를 위해 매일 새롭게 적용한 배짱권법의 실천으로 나의 일본어 실력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아침 저녁 시간에는 일본어 학습, 낮에는 실험 연구 등의 연속적인 생활이 반복되었다. 때론 TV아나운서처럼 유창하게 일본어를 말하는 꿈을 꾸곤 하였다. 이러한 배짱권법의 일본어 학습으로 일본유학의 문을 여는 국제로타리 장학생에 선정되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책이 말해 주는 성공 배짱권법을 몸소 실천하여, 꿈을 현실로 가능하게끔 하게 한 멋진 체험이었다. 그 후 유학의 길은 일본 교토대학 영장류연구소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한국인 제1호 영장류 분자생물학을 연구하게 된 기쁨과 다양한 외국 친구를 만나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작열하는 태양의 열에너지와 대지를 뒤덮는 초록의 그린에너지가 뒤섞여 삶의 멋진 에너지를 내는 뜨거운 여름날, 1986년 여름방학 나는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를 향하는 열차 안에 있었다. 일본 시골의 전원적인 분위기가 차창으로 스치는 가운데, 열차 안 승객 대부분은 책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나에게 놀라움과 감동이었다. 선진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느낌 속에 어느덧 열차는 미시마역에 도착하였다. 그때의 국립유전학연구소의 방문은 훗날 일본유학의 길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유학의 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인가? 길을 찾자. 길을 찾아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연일 생각과 고민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아버지의 평소 가르침이었다. 그 당시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이 유명했는데 정신과 의사인 이시형 박사가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소심증과 열등감, 체면의식과 조급증의 원인을 알아보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책으로 인생은 허세가 아닌 배짱으로 사는 것이며, 배짱이란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다움으로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책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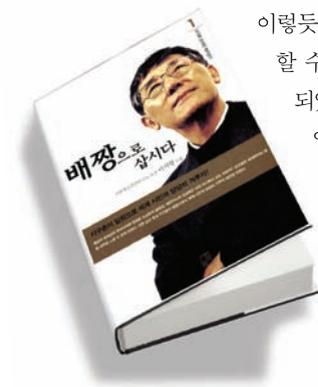
지금 내가 이동성 유전인자 연구로 행복할 수 있는 동기는 이시형 박사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나에게 책은 그 속에 길이 있으며 내일의 발전을 꿈꾸게 하는 위대한 매체이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로부터 탄생되며, 그 역사를 말해 주는 책은 이동성 유전인자처럼 진흙 속의 아름다운 진주임에 틀림없다.

”

유학 생활은 고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두둑한 배짱으로 드라마나 책에서나 나오는 ‘옥스포드대학’ ‘하버드대학 학생들의 공부벌레들!’처럼 언젠가 나도 그들 공부벌레와 함께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그 시작으로 박사 후 연구원은 머나먼 나라 이스라엘(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크기의 나라)에서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는 유전자의 신비한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곳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냉전으로 한국인들은 수시로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천연자원의 빈곤, 사막의 삭막한 곳에서, 오직 머리만으로 생명과학의 발전과 핵심기술 개발로 선진국이 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갖게 해준 나라이기도 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수시로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자 및 수상후보자를 초빙하여, 대학원생과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고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에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튼튼한 기초과학 위에 응용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모인 과학자들의 오죽을 모아 그 속에서 인터루킨 같은 생물학적으로 주요한 조절단백질과 수용체 등을 탐지하여 상품화하고 있었다. 생명과학 육성의 길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 뜻 깊은 일이었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싫어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곳에 생명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보배가 숨어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는 우리의 인간유전체를 구성하는 염기서열(ATGC)의 대표적인 예인 정크DNA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유전인자로 알려진 ‘이동성 유전인자’가 얼마나 소중한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유전자는 단지 2%를 차지하는 반면, 이동성 유전인자는 인간 유전체의 45%를 차지하며 이들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있어 인간의 진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구상의 생물종이 다양화된다는

무더운 여름날에는 연구소 친구들과 지중해에 가서 해수욕을 즐기곤 하였는데 어느 날, 지중해안의 모래밭에 폭탄이 매설되어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 군인과 경찰관들이 비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펼쳐졌다. 이스라엘은 자주 폭탄테러가 일어나는 위험한 나라였다. 난생 처음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 위험한 나라에서 연구의 즐거움으로 버틸 수 있었던 동기 또한 석사과정 때 읽었던 배짱권법이었다. 더불어 생명과학의 매력에 본격적으로 과학관련 논문을 즐겨 읽게 되었고 우연히 네이처지의 광고와 만나게 되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원 모집!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꿈에 그리던 옥스퍼드대학.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가야지, 가야한다. 말로만 듣던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 내가 읽은 이시형 박사의 배짱으로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두둑한 용기가 생겼다. 하고자 하는 각오로 과감히 서류를 제출하고 3번의 국제전화 인터뷰 끝에 성공하였다. 책에서 터득한 배짱권법이 꿈을 현실화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실력은 기본이고 배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동성 유전인자에 대한 연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윈포드병원 분자신경정신과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정신분열증과 다발성경화증 질병은 이동성 유전인자의 페밀리로 구성된 HERV-W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 최근 연구성과이다. 한편 이들은 인간의 태반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져, 이동성 유전인자 HERV-W페밀리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태반을 형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동성 유전인자는 두 얼굴을 가진 인간유전체의 핵심 스위치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옥스퍼드대학의 공부벌레들과 토론하면서 열정과 희망에너지 모두를 가질 수 있었다. 이동성 유전인자가 있어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들 연구에 나날이 기쁘며, 내일은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올까 기다려진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우리 인간 진화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성 유전인자의 프린키피아를 찾아서 오늘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 내가 이동성 유전인자 연구로 행복할 수 있는 동기는 이시형 박사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나에게 책은 그 속에 길이 있으며 내일의 발전을 꿈꾸게 하는 위대한 매체이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로부터 탄생되며, 그 역사를 말해 주는 책은 이동성 유전인자처럼 진흙 속의 아름다운 진주임에 틀림없다.

도서관은 변신 중!

도서관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제1도서관이 3개의 주제자료관 체제로 재배치되었다. 도서관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여 자료안내 및 정보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진 도서관,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도서관, 그 변화 속으로 함께 가보자.

주제자료관, 이용자의 발걸음을 따라 재배치되다

지난해 8월 증축한 제1도서관은 4개의 주제자료관(과학기술, 인문사회과학, 어문학, 예체능)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의 주제자료관이 2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같은 주제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자료유형에 따라 2개 층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서관 서비스 제공측면에서도 인력 소모가 많은 공간 구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15일간 주제자료관 재배치 작업이 진행되었다.

각 주제자료관을 2개 층에서 단일 층으로 배치

2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던 자료관을 4층 과학기술자료관, 3층 인문사회과학자료관으로 재배치하여 한 층 한 주제자료관 체제를 구현하였다.

어문학자료관과 예체능자료관이 문학예술자료관으로 통합

2층 어문학자료관과 예체능자료관을 통합하여 문학예술자료관으로 재탄생하였다.

신관은 단행본, 구관은 연속간행물 등으로 분산 비치

주제자료관 내에서 건물별로 신관은 단행본, 구관은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등을 분산 비치하여 이용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도서관에서는 향후 그룹스터디룸을 포함한 이용자 편의시설과 자료열람 공간 확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도서관 층별안내 |

- 4F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 연속간행물 | 참고자료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 그룹스터디룸
- 3F 인문사회과학자료관**
단행본 | 연속간행물 | 참고자료 | 독서치료자료 | 북카페 | 고전자료실 | 우계문고 | 그룹스터디룸
- 2F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 연속간행물 | 참고자료 | UN·EU·IMF자료 | 지도자료 | 박종근 박사 문고 | 취업지원자료
- 1F**
이용안내 | 대출·반납 | 회원등록 | iCOMMONS | 타기관자료이용

도서관 이용시간

제1도서관, 제2도서관 - 학기중(평일 09:00 ~ 21:00) 방학중(평일 09:00 ~ 18:00) 토요일(09:00 ~ 13:00)
일반열람실(제2도서관) - 평일(06:00~23:00) · 시험기간(05:00~24:00) ※ 제1열람실 연중 24시간 개방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선을 담아 새단장하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자료안내 및 정보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용자 친화적인 메뉴 구성

그동안 이용자들이 원하는 메뉴를 한 눈에 찾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메뉴 구성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각 메뉴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추가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보다 쉬운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구현을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나 문의가 많은 항목을 홈페이지 전면에서 부각시켰으며, 각 항목을 그룹화하여 레이아웃 구성함으로써 간단한 구조이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인화면 및 안내 페이지에 각 담당자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게재하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이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자 하였다.



이용자 및 사서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기능 개발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주제별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 분야에 따라 학술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주제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제공

학과별로 다양한 최신 학술정보를 수록한 학술정보가이드를 개발하여 주제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블로그(<http://pnulib.tistory.com/>),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pnulib>)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사서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실재 없이 정보자원을 수집, 개발, 정리, 서비스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사서'가 있다. 쏟아지는 정보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도서관을 살아있는 지식의 유통공간으로 만드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사서'다.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며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 첫 번째 만남, 자료개발팀과 함께한다.

01 자료개발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부산대학교도서관 자료개발실은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자료를 선정, 구입, 등록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읽는 교양도서, 참고도서 등을 비롯하여 연구용 도서, 학술 저널, WEB DB, 비도서자료 등을 수집하는 부서로, 업무의 핵심은 대학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한지를 검토, 구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자료개발실**을 통해 들어온다

0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도서 선정, 구입: 교수 및 학생들이 신청한 자료를 도서관 자료선정기준에 근거해서 선정하거나 신간 소식, 서평, 다양한 서지 도구를 이용하여 사서들이 자료를 선정하여 주문하고 입수된 자료 검수, 확인

연속간행물 · WEB DB 구독: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의 선정, 신착자료에 대한 체크인, 매년 구독료 인상과 환율변동 등을 고려한 구독료 관리

자료등록: 자료의 물리적 입수,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장비(장서 도장, 바코드 부착 등), 장서통계 유지

자료구입예산총괄: 도서관 자료구입비총괄 조정, 집행

- 희망 도서와 추천 자료 중에서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자료 선정
- 자료 종류별로 서점, 대행업체에 주문
- 입수된 자료의 실물확인(서지정보확인, 파본유무 체크 등)
- 도서관 자료로 등록
- 도서관 정서인 바코드 등 부착
- DB 구축부서로 인계

03 올해 중점 업무는 무엇인가요?

- 2011년까지는 담당자가 자료종류별로 자료를 선정, 주문, 구입하는 구조였으나 2012년부터는 단행본에 한해 주제별 담당자를 정하여 주제별로 자료를 선정, 주문, 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제별 담당자 개념은 이용자를 직접 만나는 주제 자료관에도 확대되어 주제자료관 담당자 또한 학과별 담당을 지정하여 해당 분야 자료를 집중적으로 추천, 선정하도록 업무를 개편하였습니다.
- 양질의 장서를 일괄되게 선정하기 위해 자료선정 기준 및 세부지침 또한 정비하는 등 2012년 자료개발실은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4 도서관에 보고 싶은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 로그인 ▶ My Library ▶ 자료신청/조회 ▶ 희망도서 ▶ 직접 신청

● 신청 후 국내서는 2-3주 이내 이용가능, 외국서는 1개월 이내 이용가능

● 자료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자료가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발송

05 업무의 애로사항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희망도서 신청 시 자료주문 시간과 맞지 않거나 책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관에 자료가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하거나 비싼 책을 신청할 경우 또는 만화, 환타지 소설 등 대학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를 신청할 경우 자료를 구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입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경우 가장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Tip!

부산대학교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대출하는 도서뿐만 아니라 비도서, 전자저널, 학술 DB 등 다양한 자료들이 매년 구입됩니다. 자료개발실에서 구입하는 자료들 중 극히 일부 자료만을 학생들이 알고 이용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자료,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더욱더 알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학과만을 위한 **도서관 학술정보가이드**

도서관에서는 학과별로 다양한 최신 학술정보를 수록한 학술정보가이드를 개발하여 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연구자와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금 만나 보세요.

수록내용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에는 강의와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Books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공서적의 위치, 신착도서, e-book, 유용한 참고도서, 학위논문 등을 알려줍니다.

수업자료

수업교재로 사용하는 도서, 부교재와 번역서,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교수계획표 등을 알려줍니다.

Journal & Article

저널검색, 학과의 주요 국내·외 저널, 참고문헌 관리도구(Refworks, EndNote Web) 안내, 이용률이 높은 논문, 주요저널의 최근 논문 등을 알려줍니다.

학술DB

학술DB는 학술지 논문, 프로시딩, 보고서, 뉴스, 리뷰, 특허, 규격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학과별 특화된 DB를 알려줍니다.

SCI서비스

SCI급 학술지를 학과별로 분류하여, TOP 10 저널, 신규/탈락 저널, 학과 연구자의 최신 SCI급 논문, 인용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동향 & Site

학과 관련 주요 국내·외 학회, 국내 주요 기관, KISTI 글로벌동향 브리핑, 학회 최신동향을 알려줍니다.

E-Learning, 공개강의 OCW

외국어, 공무원 시험, 교양 동영상 강좌, 우수한 국내외 대학 강의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Ask a Librarian

도서관 위치안내, 자주하는 질문(FAQ), 담당사서 연락처를 수록하고 있으며, 사서에게 질문도 가능합니다.

학술정보가이드 시작하기

주제분야별로 1개 이상의 학과를 선정하여 2012년 8월 31일까지 시스템개발을 마치고, 9월 1일 현재 16개 학과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향후 희망하는 학과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현재 서비스 중인 학과입니다.



- ▶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접속
- ▶ 이용자 서비스
- ▶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 ▶ 혹은, 메인화면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배너 클릭

- 경영대학 - 경영학과(<http://libguides.pusan.ac.kr/business>)
- 공과대학 - 기계공학부(<http://libguides.pusan.ac.kr/me>)
- 재료공학부(<http://libguides.pusan.ac.kr/ms>)
- 전자전기공학부(<http://libguides.pusan.ac.kr/ee>)
- 나노과학기술대학 - 나노소재공학(<http://libguides.pusan.ac.kr/nm>)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http://libguides.pusan.ac.kr/law>)
- 사범대학 - 일반사회교육과(<http://libguides.pusan.ac.kr/sse>)
- 사회과학대학 - 사회복지학과(<http://libguides.pusan.ac.kr/sw>)
- 생명자원과학대학 - 동물생명과학과(<http://libguides.pusan.ac.kr/as>)
- 예술대학 - 음악학과(<http://libguides.pusan.ac.kr/music>)
- 의학전문대학원 - 해부학교실(<http://libguides.pusan.ac.kr/anatomy>)
- 인문대학 - 사학과(<http://libguides.pusan.ac.kr/history>)
- 영어영문학과(<http://libguides.pusan.ac.kr/english>)
- 한문학과(<http://libguides.pusan.ac.kr/cw>)
- 자연과학대학 - 분자생물학과(<http://libguides.pusan.ac.kr/mb>)
- 화학과(<http://libguides.pusan.ac.kr/chemistry>)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개발 신청 : 도서관 과학기술팀 051-510-1821

이젠, 보고 싶은 외국학술지 무료로 맘껏 이용하자!

- 외국학술정보 공동활용 인프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는

국가 차원의 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주제 분야별 학술정보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전국 9개 대학에서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0,000여 종의 해외학술지에 대해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riiss.kr>) 회원이라면 누구나 전액 무료 복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술과학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fric.pusan.ac.kr>)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기술과학 분야의 세부주제에 따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1. 분야별 학술지 리스트
2. Current Issue
이용률이 높은 학술지의 최근호 안내
3. SCId급 학술지
Top 10, 신규 학술지, 탈락 학술지, SCI 학술지 인용분석 리포트
4. KISTI 글로벌 동향 브리핑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전하는 최신 해외과학기술 동향정보
5. 국내 주요 학회
국내 주요 학회 리스트, 학회 동향정보

이용방법

1 우리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 소장자료 검색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자료 > 학술지 권호 정보 확인
- 제1도서관 4층 방문 후 원문복사(마이버카드 이용)
- 전임교원, 시간강사는 학술자원이메일발송서비스를 통해 이메일로 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학원생 등 확대 예정)

학술자원이메일발송서비스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인쇄본)의 원문을 파일(PDF)로 생성하여 신청자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

- 1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2 학술지를 검색하여 검색결과 상세화면으로 이동
- 3 아티클이 실린 학술지 권호 확인 후 **학** 아이콘 클릭
- 4 원문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 구축된 원문이 있으면 해당 아티클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5 구축된 원문이 없을 경우 직접 아티클명, 수록 페이지 등을 입력하여 신청
- 6 신청자의 이메일로 원문이 도착하면 원문보기 클릭하여 이용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ric.pusan.ac.kr>)

2 우리 대학에서 소장하지 않은 학술지

- 1 RISS(<http://riiss.kr>) 이용
RISS 로그인 > 학술지 검색 > 상세정보에서 '인쇄저널소장기관' 리스트 중 [무료] > >대학교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선택 > 복사/대출 신청 > 신청하기



- 2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http://ndsl.kr>) 이용
NDSL 로그인 > 논문명 검색 > 원문복사신청 선택 > 신청하기

- 3 기타 이용 방법
- 이메일 · 팩스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http://fric.pusan.ac.kr>) > 작성 > 메일(fric@pusan.ac.kr) / 팩스(051-510-3103) 신청
- 센터 방문 신청 :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1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국내 9개 대학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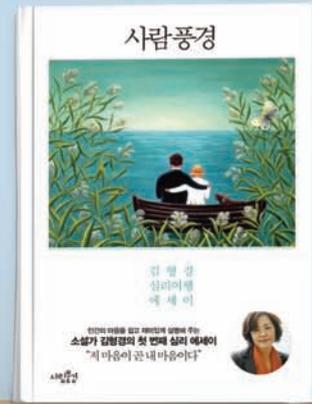
대학	주제분야	학술지 종수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356종
경북대학교	전자, 전기, 컴퓨터, 정보공학	1,034종
고려대학교	인문학	1,744종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914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1,964종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401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사회학	1,186종
전북대학교	농축산학	505종
충남대학교	행정, 경영학	1,046종

(학술지 종수 : 2012. 8. 1. 기준)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매월 좋은 책 한 권을 교내 모든 회원인들과 함께 읽는 '이달의 책'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012년 6월 '이달의 책' 우수독후감에 당선된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원본은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풍경 심리여행 에세이

김형경 | 사람풍경 | 2012 | 352 p.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나는 심리학을 부전공하고 있다. 그동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거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착된다. 작기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의 결핍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정신분석을 토대로 전개된다. 사람의 행동을 이론과 틀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양 결론내리는 것은 내가 항상 경계해 오는 행동중 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몇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이건 이래서 저렇다, 저건 저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난 뒤에는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고 싶어졌다.

'건강한 자기에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악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런 모습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책에 서술되어 있다. 주위에는 자신만이 항상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책에서는 병리적인 자기에라고 말한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병리적인 자기에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다. 자신의 말만 옳고, 다른 모두가 그 뜻에 따라야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셨다.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아버지의 모습에

인간의 불안전함과 운명에 이슬기(도시공학과 4학년)

너무나 실망한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싫고 혐오스럽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병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뒤집힌 일이 있었다.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아버지가 청소년이던 때의 감수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집을 서랍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때의 충격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어떻게 이런 감성을 지니고 인간의 삶에 대해 고뇌하던 사람이 지금의 아버지와 동일인물일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깨달은 것은 완전히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가 순간, 나에게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던 아버지는 자기방어의 일환으로 가족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다. 물론 아버지의 행동들을 모두 용서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아버지가 분노의 대상이 아닌, 상처 입은 연민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완전히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타인은 물론 나 자신도 더 사랑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추악한 모습에 직면하는 순간, 나는 불안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스스로를 위로했다.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 모습도 '나'로 인정하는 건강한 자기애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수행이 덜 된 탓인지 타인의 추악한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날 때가 많지만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런 모습에 상처를 덜 받게 되었다. 인간의 불안전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산다는 것이 한결 편해진 것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깊게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방종과는 다른, 니체의 운명애와 거의 같다. 불가피한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운명애다. 동시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작가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심리적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그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했다. 인간의 정신에 최고는 없으며 인생이란 모든 것들의 부조화와 갈등을 끊임없이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깨달음. 나는 이것이 인간 삶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불안전함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2012년 상반기 회원인의 베스트셀러

- 대출통계로 알아본 부산대학교도서관 이용도서 Top 20 -

2012년 상반기 회원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은 무엇일까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 20권을 소개합니다. 이용도서 종합 1위는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82회)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경제교양서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분야 도서가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띄어 놀랐는지요?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문학 분야가 강세였습니다. 기욤뮈소의 『천사의 부름』 조지 오웰의 『1984』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으며 『도가니』 『용의자 X의 헌신』 『해를 품은 달』 등 원작이 영화 또는 드라마화되었던 작품들이 20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외

에도 많은 문학작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인생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춘을 위한 김난도 교수의 따뜻한 멘토링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4위를 차지하였으며,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철학분야에서는 부산대학교도서관 4월 '이달의 책'으로 선정된 강신주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201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대출 책수는 총 282,596책으로 제1도서관 232,825책, 제2도서관 6,967책, 법학도서관 17,243책, 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도서관 10,999책, 양산캠퍼스 의생명과학도서관 13,233책, 아미캠퍼스의 의학정보검색실 1,329책으로 나타났습니다.

<p>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부키 2007 383 p.</p>	<p>천사의 부름 기욤 뮈소 지음 전미연 옮김 밝은세상 2011 475 p.</p>	<p>1984 조지 오웰 지음 김기혁 옮김 문학동네 2009 398 p.</p>	<p>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지음 쌤앤파커스 2010 318 p.</p>
<p>공중그네 오쿠다 히데오 지음 이영미 옮김 은행나무 2005 309 p.</p>	<p>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지음 창비 2008 299 p.</p>	<p>도가니 공지영 지음 창비 2009 294 p.</p>	<p>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홍영남, 이상임 옮김 을유문화사 2010 543 p.</p>
<p>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 보통 지음 정영목 옮김 창비 2007 278 p.</p>	<p>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지음 사계절출판사 2011 346 p.</p>	<p>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말미디어 2007 258 p.</p>	<p>닥치고 정치 김여준 지음 지승호 엮음 푸른숲 2011 329 p.</p>
<p>Case 행정법특강 홍정선, 김기홍 지음 박영사 2011 539 p.</p>	<p>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양역관 옮김 현대문학 2006 404 p.</p>	<p>헝거게임 수잔 콜린스 지음 이원열 옮김 북폴리오 2009 374 p.</p>	<p>건투를 빈다 김여준 지음 푸른숲 2008 331 p.</p>
<p>(한글, MS-워드, 비지오를 활용한) 워드프로 세스 스킬업 홍정선, 김기홍 지음 박영사 2011 539 p.</p>	<p>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지음 이상해 옮김 문학동네 2004 303 p.</p>	<p>해를 품은 달 1 정은결 지음 파란미디어 2011 464 p.</p>	<p>사람풍경 김형경 지음 예담 2006 373 p.</p>

2012년도 2학기 도서관이 효원인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시

대학도서관으로는 처음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도서관이 프로그램 참가대상을 재학생에서 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직원을 대상으로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5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직원은 참석률 80% 이상일 경우 해당 시간만큼 상시학습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성장의 아픔, 성인아이, 자기존중, 치유와 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그룹별 20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도서관은 지난 2006년부터 매학기 주도적으로 개발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07년 제39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서관 문화교육팀 김경숙 사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기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일상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의 | 제1도서관 문화교육팀 051-510-1863

02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보자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목록 발간

도서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고민 등에 도움이 되는 책을 수록한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첫 번째 목록은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대학생들이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고자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목록은 사랑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할 때, 사랑이 어렵고 두려울 때 등 <사랑>을 주제로 한 책을 다루고 있으며, 세 번째 목록은 <흔들리는 20대>, 네 번째 목록은 <가족, 상처인 동시에 구원!>, 다섯 번째 목록은 <부모와의 관계>를 주제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별 독서 목록은 도서관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별 목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제1도서관 문화교육팀 051-510-1863

03 효원인, 책으로 통하다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공모

도서관에서는 효원인이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이란 주제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천도서를 공모한다. 판타지, 만화, 선정적 도서, 무협지 등을 제외한 모든 도서를 추천할 수 있으며,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가능하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추천도서와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013년 1월 중 우수한 추천사유서를 선정하여 100명에 한해 도서상품권(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삶에 영향을 미친 좋은 책을 추천함으로써 친구, 선배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04 도서관에서, 배우고 즐기다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실시

도서관에서는 9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1도서관 1층 이용교육실에서 학생 및 교내 연구진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2학기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논문작성을 위한 정보탐색법과 참고문헌 관리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은 신청자가 5명 이상일 때 실시하며, 정기교육 외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소와 일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교내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술DB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학기 학술DB전문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일정을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에서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정기교육

대상	일시	내용	장소
학부생	2012.9.12.~11.28. (매주 수요일) 16:00~16:50	주제자료관 안내 리포트 작성을 위한 정보탐색법 RefWorks(참고문헌관리도구) 활용법 타기관 자료이용 및 자료제공서비스	제1도서관 1층 이용교육실 (iCOMMONS 내)
대학원생 및 연구진	2012.9.13.~11.29. (매주 목요일) 10:00~11:30	국내·외 학위논문 원문 검색법 학술DB, 전자저널 검색법 RefWorks(참고문헌관리도구) 활용법 타기관 자료이용 및 자료제공서비스	

교육신청 :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 이용자서비스 > 도서관 이용교육

문의 | 제1도서관 문화교육팀 051-510-1862~3

PNU 도서관친구들

도서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PNU 도서관친구들'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도서관 발전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도서관 발전을 위한 후원금 출연
- 둘째,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자료기증
- 셋째,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기부

Story 1 조영철 씨, 고문헌 90점 기증



경남 밀양시에 거주하는 조영철(무안면 덕암리, 65세)씨가 집안 대대로 전해 온 고문헌 90점을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기증 자료는 조선 중기 학자인 마수(眉叟) '허목(許穆)', 성리학을 확립시킨 중국의 '주희(朱熹)' 선생 등의 글씨 탁본(拓本) 19점과 조선 광해군 때 예학자인 신의경(申義慶, 1557~1648)이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까지의 모든 의식을 기술한 '상례비요(喪禮備要)' 등 고서(古書) 71점으로 조선시대 경제와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8월 7일 밀양을 방문해 조영철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의 고문헌자료 기증 설명회를 통해 이번 기증을 결심하게 됐다는 조영철 씨는 "이 자료들이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Story 2 조선근대사 연구 재일사학자 박종근 박사 문고 설치

조선근대사 사료 수집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재일사학자 故 박종근 박사의 문고가 도서관에 설치되었습니다(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관 내). 이 문고는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등 8,373권의 근대 조선, 일본, 중국 관련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국내 희귀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故 박종근 박사는 조선근대사에 있어 일본, 중국과의 관계 및 동아시아 근대사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학자로, 친구인 우파장학회 설립자 최영석 회장에게 부산대에 자료를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최영석 회장은 자료 기증 주선 및 정리 비용 일부(2천만 원)를 부산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박종근 박사 문고는 조선근대사 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장서들로 구성되어 있어 철학, 역사,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관은 8월 28일 박종근 박사 문고 개소식과 함께 故 박종근 박사에 대한 감사패를 장남 박용일 선생과 자료기증에 도움을 준 최영석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참여문의 : 기획전산팀 박지영 051-510-1810

자료기증 : 자료개발팀 김명숙 051-510-7600